봄보다 먼저 온 3.1… "만해를 기억하리"

제37회 만해백일장 대상 강민지, 시 '만만한 이름'

총 1386명 참가, 시 · 산문 뽐내
초중등부 줄고 대학일반부 늘어
장원 · 우수 · 장려 등 120명 수상
한영숙 여사 "만해 魂 이어받길"

3월 1일 동국대서 열린 만해백일장 시상식에서 대상수상자 강민지 양이 만해 스님 유족대표인 한영숙 여사(사진 오른쪽)에게 상장을 받고 있다.

자줏빛 암막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 한 줌에 채색되는 곳. 커다란 테이블 위에는 개구리가 든 마취 병이 놓여 있다. 마취제를 듬뿍 적신 솜. 빈틈없이 꽉 잠긴 마취 병.

힘없이 누워 있는 개구리. 네 다리는 뾰족한 핀으로 고정된다. 원소기호 외우듯 나열되는 소문들. 낱낱이 조각나는 만만한 이름들.

아이들은 입을 크게 벌려 웃고 있다. 웃음소리는 해부용 칼보다 날카롭다. 아무렇지 않게 개구리 몸을 발라내고 있다.

해부용 가위가 개구리의 얇은 피부에 상처를 내는 것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비릿한 약품 냄새 나는 과학실. 한쪽 벽면에서는 이미 배가 갈라진 오징어와 닭이 전시되어 있다. 테이블 위. 개구리 대신 내 이름이 잘게 해부되었다.

- 대명여고3 강민지作 '만만한 이름' -

민족의 독립운동을 주도한 만해 한용운 스님의 민족애와 문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1979년 시작된 전국만해백일장. 3 · 1운동 100주년을 3년 앞둔 제38회 전국만해백일장에서 대명여고 3학년 강민지 양이 만해대상을, 노은희 씨가 만해상을 수상했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전준호)는 3월 1일 동국대 일원에서 '제37회 전국만해백일장' 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총 1386명이 참가, 예년에 비해 초 · 중등부 참가자가 줄고 대학일반부 참가가 늘었다.

대회에서는 시 · 시조 부문서 대명여고 3학년 강민지 양의 '만만한 이름' 이 대통령상인 만해대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국회의장상인 만해상은 산문 일반부 노은희 씨가 '만만한 것들' 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별상 조계종 총무원장상과 포교원장상은 각각 흥승연 · 양원규 씨가 수상했다. 이외에도 시 · 시조와 산문 부문서 장원, 우수상, 장려상 등 120여 명의 수상자가 배출됐다.

만해대상을 수상한 강민지 양은 "만해백일장의 규모가 커서 평소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만해 스님의 독립운동 업적에 대해 자세히 알지는 못했다"며 "이번 대회 참가를 계기로 조금 더 만해 스님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정의성 심사위원장은 "시인 임화의 시에 '봄보다 먼저 3월 1일이 온다' 는 구절이 있다. 만해백일장은 민족독립운동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장으로 발전했다"면서 "올해는 '만만한' 이라는 주제에 결코 만만치 않은 작품이 많았다. 재미있고 눈길을 끄는 작품들 덕분에 심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심사평을 남겼다.

이번 만해백일장은 총 5개 글제를 발표한 뒤 진행됐다. 중등부 및 고등부의 경우 작품 표절을 방지하기 위해 감독관의 감독 하에 강의실에서 작품 활동이 펼쳐졌다. 총 상금은 600여만 원.

시상식에서 만해 스님의 혈족인 자녀 한영숙 여사는 "아버님의 혼과 업적을 기리는 백일장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은 학생들에게 직접 시상하게 돼 무척 기쁘다"며 "오늘의 젊은 주인공들이 어떠한 위험과 위협에도 굴하지 않으신 만해의 혼과 정신을 이어 받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견인하고, 나아가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데 크게 기여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만해백일장은 1979년 3월 1일 만해 스님 탄신 100주년과 민족자주독립운동 60주년을 기념해 문을 연 행사다. 만해 문학을 재조명하고, 독립운동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이어지고 있는 만해백일장은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이었던 만해대상이 대통령상으로 승격되는 경사를 맞기도 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교육 황무지에 자비의 씨앗을

로터스월드, 3월 1일 캄보디아 수원마을 중 · 고등학교 착공

(사)로터스월드는 3월 1일 캄보디아 프놈끄라옴 수원마을에서 중 · 고등학교 착공식을 거행했다.

'캄보디아 프놈끄라옴-수원마을 3단계 지원사업' 을 공동 진행 중인 (사)로터스월드와 경기 수원시가 막바지인 3단계 사업에 접어들었다.

(사)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는 3월 1일 캄보디아 프놈끄라옴 수원마을에서 중 · 고등학교 착공식을 거행했다. 올해 11월 완공 예정인 수원 중 · 고등학교는 지상 1층, 2개동에 6개 교실로 설계됐다. 부속동과 위생시설 등을 모두 포함해 연건평 8,375㎡ 규모다.

이번 신축 사업은 (재)수원시국제교류센터가 총괄하고, 로터스월드가 시공을 맡았다. 수원시와 로터스월드는 '캄보디아 프놈끄라옴-수원마을 3단계 지원사업' 을 공동 진행하고 있다.

로터스월드 측은 "문화재보호구역인 프놈끄라옴 수원마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2012년부터 4년 간 문화재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압살라청 및 시엠립 주정부와 함께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캄보디아 전통 압사라 양식을 적용할 뿐만 아니라 빗물 활용 시설,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 등 설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착공식에는 로터스월드 캄보디아 아동센터 원장 지우 스님, 양진하 경기 수원시의원, 분 타리트(Bun Tarith) 시엠립 주정부지사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아울러 로터스월드는 2월 24일 라오스 씨엥쿠앙 덕캄마을서 '덕캄 초등학교 도서관 기증식' 도 실시했다. 지난 1월 씨엥쿠앙 도교육청과 MOU를 체결하고, 지역 아동들을 위한 교육지원에 나설 것을 약속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로터스월드는 백천문화재단 지원을 받아 덕캄초등학교에 도서관을 건립했다. 약 300㎡ 부지에 총 2칸(72㎡) 규모다.

로터스월드 측은 "그동안 덕캄초등학교는 도서관이 없었을 뿐 아니라 20여 권 도서가 전부였기 때문에 학생들의 독서활동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학생들이 양질의 도서를 쉽게 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아름 기자**

대학전법지원단 · 50주년 기념사업 박차

대불련총동문회, 올해 세부계획 결의
백효흠 회장 연임… "최선 다하겠다"

2017년 창립 50주년을 앞두고 있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 제27대 회장에 현 백효흠 회장이 연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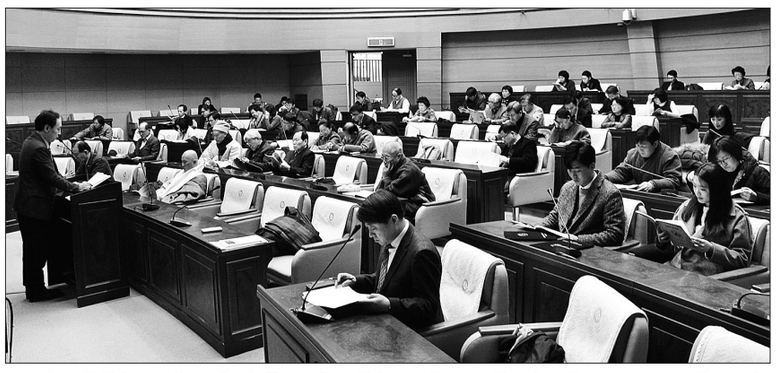
대불련총동문회는 2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2016년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회장 선출 및 올해 사업계획 등의 안건을 다뤘다.

회의에서는 백효흠 현 26대 회장이 27대 회장에 추대돼 연임하게 됐다. 백 회장은 지난 2013년 전임회장 선출과정서 불거진 조직의 갈등을 봉합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백 회장은 "여러분의 회장 연임 결정은 모두가 스스로 동문회 운영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약속이라 생각한다. 그것을 믿고 새 집행부를 구성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면서 "내년이면 동문회 창립 50주년이다. 따라서 올해에 해야 할 과제가 많은 만큼 함께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대불련총동문회는 회의를 통해 올해 △대학전법지원단 구성 △창립 50주년 기념사업(준비사업단 발족 · 50년사 편찬 · 동문회관 건립 추진 등) △사회복지 활동 참여 △재정 확충 △젊은 불자 육성 △홍보 활성화 등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대학전법지원단은 캠퍼스포교 공모사업 실천을 통해 대불련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 각 포교현장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과 어려움을 지회단위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자 마련됐다. 이를 통해 대불련의 비전을 공유하고 조직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대불련총동문회는 3월 중 대학전법지원단을 출범하고 2차에 걸쳐 각 지회 복원프로젝트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전개해오고 있는 3 · 3 · 3운동(3000명 동문 추가 발굴, 300개 대학동문지회 설치, 대불련 · 총동문회 · (사)대불의 삼위일체)의 확대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대불련총동문회는 2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2016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지원사업으로는 대학생 불자와 동문회원이 연대할 수 있는 전국동문대회(8월 6일 예정), 청춘토크 파티 · 명사 초청강연회(혜민 스님의 '연애도 붓다와 함께' 등)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외에 장학사업과 군포교 지원사업, 53명찰 순례 등도 추진한다.

윤호섭 기자

하얀코끼리, 미얀마서 자비행 펼치다

2월 19~25일 해외봉사단, '쉐구지 학교' 준공식도

불교계 국제교류협력NGO (사)하얀코끼리가 미얀마로 해외봉사를 떠났다.

(사)하얀코끼리(이사장 영담)는 2월 19~25일 미얀마 해외봉사를 실시했다. 아울러 이번 봉사활동 기간 동안에는 지난 10월 착공한 바고 지역 '쉐구지 학교' 준공식도 개최했다.

봉사활동은 양곤 외곽의 딴린 지역 및 바고 지역을 중심으로 펼쳐졌다. 특히 딴린 지역 수투판 학교에서는 페인트 시공, 시설 개 · 보구, 보건위생교육, 환경교육 등 진행했다. 특히 학생들을 위한 식료품 및 학용품, 의류, 컴퓨터, 축구공 등 다양한 물품을 지원했다.

이번 해외봉사단에 합류한 최재희 씨는 "3년 전부터 봉사활동에 참여했다"며 "몸은 힘들지만 미얀마 학생들을 위해 작은 일이라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은 정말 즐겁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하얀코끼리는 2월 19~25일 미얀마 해외봉사를 실시했다.

하얀코끼리 측은 "앞으로는 7일 간 봉사활동을 넘어 연중교류 및 협력 시스템을 구축할 생각"이라며 "내년부턴 현지 밀착형 봉사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으며, 마을 주민들과 문화교류 장을 형성할 계획"이라 밝혔다. **박아름 기자**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제74기 최면 전생요법 · 빙의치유법 강좌

"한마디 말로 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한국최면과학원 임 재 형 원장 직강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최면요법!
잠재의식 직접조절 – 강력한 개선효과!

. . .

누구나 과학적인 방법만 익히면 자기개선은 물론 타인을 돕는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전생요법 : 도대체 전생에 무슨일이 있었던걸까?
무의식 속에 숨겨진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통찰력을 높혀 지혜로운 삶을 찾게한다.

빙의치유 : 몸은 왜 이렇게 이유도 없이 아픈것일까?
빙의된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어떤 영가가 들어와있는지 당사자나 가족들이 알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들어와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원하는 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내어 천도할 수 있다.

사주명리 : 전생, 사주팔자, 빙의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 백호대살은 저승사자 달고다니니 횡사 악사요…

KBS 굿모닝 대한민국 / MBC 생방송 오늘아침
SBS 미워도 다시한번 그 여자 그 남자 / JTBC 부모찾기
채널A 현장르포 특종세상 / TV조선 가족 두개의 문
MB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외 / YTN 사이언스 과학향기
tvN 각종 케이블 방송에 다수 출연

tv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출연 화제!

실전위주의 파워풀한 강의!!

개인상담 및 공·사 기업체 출장강의 가능
성격 개선/ 자신감 고취/ 습관 교정/ 발표 불안/ 부부 솔루션
대인관계 개선/ 스트레스 해소/ 마음의 상처/ 분노 조절
집중력, 기억력 증진/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범죄 수사
스포츠선수 기록 향상/ 전생 체험/ 빙의 치유 등

현재 접수중 – 1회 무료수강 후 결정 가능

▶ 개강 : 3/15일 화요일 오전 10시 ~ 오후 5시까지 (7회 과정)
▶ 참가비 : 200만원 (과정별 교재 및 수련 CD 제공)
▶ 최면지도사협회 가입 후 전생상담사 이수증 수여

www.hypnos114.com
한국최면과학원
대전광역시 중구 석교동 13-1
042) 222-0737